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		일 시	2018.12.18.(화) 11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최준수(위원장), 김태호, 김인준, 오지웅, 손진욱, 정성훈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이호선		
의 제	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소개함.
-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휴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음.
- 대학원과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 일정이 2019년 1월 첫째주인 관계로 2018년 12월말까지는 2019학년도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함.

2.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

■ 위원장

- 회의진행에 앞서 기획처에서 작성한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함.
-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, 2018년 12월말까지는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을 책정하여야 함. 아울러 2019년 1월말까지 2019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

- 심사·의결을 완료해야하므로 1월 중순까지는 학부 등록금이 책정되어야 함.
- 배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사에게 요청함.

■ 간 사

- 최근 5년간 등록금 현황, 교육부 고시 기준 등록금 인상 상한선 예상 및 2017학년도 결산 기준 등록금 수입 현황에 대해 설명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, 등록금 인상 상한에 대한 확정 공문이 12월 21일경에 발송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공유함.
-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앞으로 매년 20%씩 입학금을 감축할 계획인데, 수입 감소에 대한 학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외국인 유학생, 평생교육원 및 한국어학당 등 부가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해 학생 측에서도 검토할 자료가 필요함. 이에 학생 측의 요청자료 리스트를 배부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8회계연도의 추정 결산을 별도 진행하지는 않으며,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추경예산을 보는 것이 결산에 가까움.
-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분리된 조직이며, 산단회계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심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.
- 2019학년도 예산(안)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 심의를 마쳐야 작성이 가능하며,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사항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준비되는 자료부터 빨리 전달해주시기 바라며, 12월 27일(목)까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후에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 일정 상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은 12월 28일(금) 이전에 결정되어야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자료 분석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, 만약 신입생 등록 일정 이후에 차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면, 먼저 가고지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없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가고지서 발행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예년보다 일찍 회의를 소집하였음.

=====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함 =====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일과 대학원 등록일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, 12월 26일(수)에 2차 회의, 28일(금)에 3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고지서 발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, 2차 회의 일정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음.
- 재학생 등록금 관련 심의는 1월 이후에도 진행되므로,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책정 전에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님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차 회의는 24일(월), 3차 회의는 26일(수)에 개최하며, 두 번의 회의로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수정 제안함.

■ 위원장

- 모든 위원이 동의하여 2차 회의는 24일(월) 오전10시, 3차 회의는 26일(수) 오후 5시로 결정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휴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였음. 이에 관련 법령과 학칙을 검토해 본 결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대표의 자격요건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음.
- 전년도 총학생회장이 휴학생이었음에도 복학을 확답 받고 참여한 이력이 있음.
- 학생 대표의 자격이 재학, 휴학 여부와 무관하므로 총학생회에서는 향후 회의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. 이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엄밀하게 따지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재학생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2019년 3월 1일이지만 학생대표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2019년 1월 초 복학 신청 이후에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임.
- 대학의 모든 규정에 나와 있는 ‘학생’은 재학생을 의미하며, 휴학생이 입후보할 수 있는 총학생회 선거 세칙은 대학의 규정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총학생회의 집행부가 학생대표 자격으로 본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며, 직접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, 정회 요청 등으로 회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으며, 학생 측에서도 가급적 일정에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9학년도 예산 지출 계획과 2019학년도 신입생 예상 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 책정이 끝난 후 수입 예상액을 산출해야 지출 계획이 최종 확정되며, 지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2019년 1월말에 본 회의에서 심사·의결하게 됨.

■ 위원장

- 오늘 회의에서는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회의 일정에 대해 조율하였으며, 차기 회의에서는 대학원과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에 대해 심의하기로 함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12.24.(월)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2. 18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